

한국판 DSM-5 성격검사(PID-5)의 신뢰도와 타당도

신 소 영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DSM-5 Section III 성격장애의 핵심 준거인 ‘병리적 성격 특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DSM-5 성격검사(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검사는 부정적 정서성, 애착상실, 적대성, 탈억제, 정신병적 경향성이라는 5개의 ‘영역(domains)’으로, 각 영역은 다시 25개의 세부적인 ‘양상(face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0개(한국판은 219문항)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607명에게 한국어판 PID-5와 함께 성격장애 진단검사, 정신병리 5 요인 척도(PSY-5)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한국판 PID-5의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둘째,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 영역(domain), 애착상실 영역,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의 양상(facets)은 원판의 요인구조와 동일했다. 그러나 적대성 영역과 탈억제 영역의 양상은 원판의 요인구조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판 PID-5 양상은 각 성격장애의 핵심 성격 특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한국판 PID-5 양상은 PSY-5의 관련 척도와 대체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PID-5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들을 대체로 잘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DSM-5 Section III 성격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성격장애, DSM-5 Section III, DSM-5 성격검사, PID-5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Tel : 043-261-2187 / E-mail : hstpsy@chungbuk.ac.kr

성격장애 진단의 문제점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은 현대 의학계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진단체계이다. 성격 및 성격장애와 관련된 이론 역시 임상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DSM의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최은경, 하지현, 2013).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성격장애의 진단준거는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간주하였으나, 진단과정에서는 절단점을 중심으로 장애 “이다” 또는 “아니다”의 이분법적인 판단과 분류를 한다는 점에서 범주적인 진단분류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접근에서는 각 성격장애를 다른 성격장애 또는 정상성격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성격장애 간 또는 성격장애와 정상성격 간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DSM에서 제시한 절단점은 다분히 인위적이다. 성격장애에서 중복진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Widiger, 2005)은 경계가 불분명한 개념들을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범주적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인해 나타난 인공적인 현상(artifact)일 수 있다. 중복 진단은 ‘개념 간의 명확한 구분’이라는 ‘범주’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는 것이며(Kupfer, First, & Regier, 2002; Widiger & Trull, 2007) 이로 인해 NOS(Not Otherwise Specified) 진단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어 진단 간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야기하였다(Verheul & Widiger, 2004).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범주 모델 대신 차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Widiger & Simonsen, 2005).

DSM-5의 성격장애

한편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격장애를 차원-범주 혼합 모델(Hybrid Dimensional-

Categorical Model)로 접근하였다. DSM-5는 기존 다섯 개로 구성된 다축분류체계(Axis) 대신 세 개의 Section체계로 변경하였는데 성격장애는 Section II와 Section III에 소개되었다. 먼저 Section II는 기존 DSM-IV의 성격장애 부분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고 있으며 Section III는 성격장애에 대한 대안적 DSM-5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범주적 방법과 차원적 방법을 결합하였으며 기존 범주적 방법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성격장애 진단에 있어 대안적인 방법으로 지지되고 있다(Bernstein, Iscan, & Maser, 2007). DSM-IV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Section II의 성격장애와 달리 새로운 모델로 접근한 Section III의 성격장애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Section III는 기존 DSM-IV에 포함되어 있던 10개의 성격장애를 6개로 축소하였다. 이전까지 성격장애 환자들은 두 개 이상의 성격장애를 진단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진단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자들은 신뢰도가 낮은 성격장애 유형을 제거하여 성격장애 진단의 공병률을 줄이고자 하였다(Skodol et al., 2011). 그 결과로 안정적이고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섯 개의 성격장애(조현형,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 회피성, 강박성)를 유지하였고 나머지 네 개의 성격장애(편집성, 조현성, 히스테리성, 의존성)는 삭제하였다. Section III에서는 여섯 개의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해당 성격장애로 진단하고, 성격장애가 고려되지만 특정한 장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질에 따라 명시된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Trait Specified: PD-TS)’로 진단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Section III에서는 성격장애 진단을 위한 두 개의 핵심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격장애는 성격기능(자아/대인관계)에서 중도 이상의 손상(Impairment in personality functioning)이 있어야 하며, 자아와 대인관계 기능 수준은 성격 기능 수준 척도(The Level of Personality Functioning Scale: LPFS)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

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 애착상실(Detachment), 적대성(Antagonism), 탈억제(Disinhibition),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이라는 다섯 개의 병리적 성격 특질(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영역(domains) 중 한 개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 넓은 범위의 다섯 개 영역은 각각 3~6개, 총 25개의 세부적인 양상(facets)으로 구성되어 있다.

PID-5 개발 및 신뢰도 · 타당도 연구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성격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전부터 성격의 개인차를 성격 특질로 설명해왔다. 각 성격장애는 특정한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격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 특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황순택, 조혜선, 박미정, 이주영, 2015). 연구자들은 Section III의 대안적 모델이 성격장애를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진단의 핵심기준인 ‘병리적 성격 특질’을 토대로 PID-5(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rueger, Derringer, Markon, Watson, & Skodol, 2012)를 개발하였다. PID-5는 성격 5 요인 모델(FFM) 및 DSM-IV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특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사이다(Widiger & Simonsen, 2005; Krueger et al., 2012). 개발자들은 먼저 성격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 Widiger와 Simonsen(2005)이 제안한 성격의 양 극단 개념 네 개를 PID-5 영역으로 반영하였다. 이것은 성격장애와 관련된 성격 특질로 ‘외향성(Extraversion) vs 내향성(Introversion)’, ‘적대성(Antagonism) vs 순응(Compliance)’, ‘통제(Constraint) vs 충동성(Impulsivity)’,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 v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으로 Harkness의 성격 병리 5 요인 모델(Harkness, McNulty, & Ben-Porath, 1995)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현형 성격장애의 핵심 하위요인인 ‘정

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성격장애 특질을 5개 영역으로 구성한 뒤 각 영역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향성(Introversion)’을 ‘애착상실(Detachment)’로, ‘충동성(Impulsivity)’을 ‘탈억제(Disinhibition)’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기존의 성격 관련 모델과 도구들을 기반으로 부적응적 성격 특질과 관련된 특성 37개를 선정하여 다섯 개 영역(domains) 하에 속하는 양상(facets)으로 포함시켰다.

척도 개발자들(Krueger et al., 2012)은 예비적으로 구성된 37개 양상 간의 관계구조가 적절한지 3번의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하였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온라인 패널에서 ‘심리적, 정신 의학 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을 선발한 뒤 초기에 구성된 37개 양상이 잘 측정되는지 확인하였다. 각 양상의 특징이 여덟 문항씩 들어있는 질문지(총 296문항)를 만들고 많은 문항 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부분으로 쪼갠 뒤 두 부분 씩 묶어 무작위로 참가자들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양상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나온 요인 중 단일 요인 모델에 적합한 문항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문항 간에 높은 상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요인 부하량이 0.5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전 과정에서 잘 측정되지 않은 양상들을 재확인하고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척도의 구조를 개정하였다. 양상마다 먼저 적절한 문항 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문항에 문항을 좀 더 추가한 뒤 첫 번째 과정의 참가자 중 일부에게 다시 실시하였다. 첫 번째 과정에서 잘 측정되지 않은 양상들은 이전에 거쳤던 과정을 반복하여 적절한 문항만 남아있도록 하였다. 다음 각 영역(domain)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개수가 제안된 양상(facet)의 개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으로 37개 양상이 25개 양상으로 축소되었고 전체 영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요인의 구성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표본(representative sample)을 표집하여 22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양상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 체계와 부합하였고 내적 일관성도 적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25개 양상을 확인하고 PID-5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PID-5는 여러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먼저 신뢰도를 확인한 몇몇 연구에서는 PID-5는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Krueger et al., 2012; Fossati, Krueger, Markon, Borroni, & Maffei, 2013).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서 PID-5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PID-5를 PSY-5(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척도와 비교한 연구에서 PSY-5의 소척도들은 대부분 개념상 유사한 PID-5의 영역 및 양상과 상관을 보였고 요인구조 역시 유사하였다(Anderson et al., 2013). 그리고 PSY-5 척도를 제외한 MMPI-2-RF 척도와 PID-5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두 검사 간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Sellbom, Anderson, & Bagby, 2013). 또한 PID-5와 SCID-II-PQ(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the DSM-IV Axis II Disorders-Personality Questionnaire DSM-IV)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Anderson, Snider, Sellbom, Krueger & Hopwood, 2014). 그리고 PID-5와 PDQ-4+(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PID-5의 양상들은 PDQ-4+로 측정되는 성격장애와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Hopwood, Thomas, Markon, Wright, & Krueger, 2012).

DSM-5에서 성격장애 진단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차원-범주 혼합 모델을 도입한 것은 기존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격장애를 연속선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APA에서는 Section III의 성격 특질 모델이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rueger & Markon,

2014). 우리나라에서도 DSM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DSM-5에서 새로 제시된 Section III 성격장애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PID-5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은 Section III 성격 특질 모델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추후 성격장애 진단하는데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해준다. 또한 서양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국내의 경우, 특유의 한국적 정서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가 국내에서는 어떠한 요인구조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DSM-5 Section III 성격장애 진단을 위해 개발된 PID-5가 국내에서 성격장애 성향이나 성격장애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7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많은 문항 수로 인한 피로 현상을 막고자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 모두 한국판 PID-5를 실시하였고 집단 1에는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집단 2에는 PSY-5 척도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총 700부 중 한 페이지 이상에 무응답 했거나, 문항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패턴으로 무선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 자료와 특정한 값으로만 일관한 응답을 한 자료 총 93부를 제외하고 총 607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참가자 중 남자는 270명(44.48%), 여자는 337명(55.52%)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5.65세($SD=9.01$)였다. 집단 1의 참가자는 295명으로 남자는 117명(39.66%), 여자는 178명(60.34%)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4.56세($SD=7.90$)였다. 집단 2의 참가자는 312명으로 남자는 153명(49.04%), 여자는 159명

(50.9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68세($SD=9.84$)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연구도구

DSM-5 성격검사(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PID-5는 Krueger 등(2012)이 DSM-5 Section III의 성격장애 핵심 진단기준 ‘병리적 성격 특질’을 반영하여 만든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PID-5는 부정적 정서성, 애착상실, 적대성, 탈역제, 정신병적 경향성이라는 5가지 영역 하에 25가지 양상¹⁾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부 양상은 여러 영역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PID-5의 영역과 양상 간의 구조는 고정적이지 않다. 총 220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0: 전혀 아니다~3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PID-5의 한국어판을 제작하기 위해 번역-역번역 절차를 거쳐 영어판 원문항을 우리말로 바꾸었다. 먼저 임상심리학 석사과정 대학원생 3인이 일차 번역을 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 1인이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한 문항의 경우는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후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번역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하였으며, 이중언어 사용자가 이 역번역된 문항과 영어판 원문항을 대조하여 문항의 의미가 동등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어 문항을 일부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한국어판 문항을 구성하였다.

1) 감정 가변성, 경직된 완벽주의, 고집증, 과대성, 관심추구, 기만, 기이성, 냉담성, 무책임성, 무쾌감증, 복종성, 분리불안, 불안성, 우울성, 위축, 위협 감수, 의심성, 인지적/지각적 조절곤란, 적개심, 제한된 정서성, 조종, 주의산만, 충동성, 친밀성 회피, 특이한 믿음과 경험.

성격장애 진단검사(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 DSM-IV에 포함된 10개의 성격장애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총 113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0: 전혀 아니다~3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문항 구성은 편집성(PN) 척도 14문항, 조현성(SZ) 척도 14문항, 조현형(ST) 척도 12문항, 반사회성(AS) 척도 19문항, 경계성(BL) 척도 15문항, 히스테리성(HT) 척도 14문항, 자기애성(NC) 척도 13문항, 회피성(AV) 척도 11문항, 의존성(DP) 척도 15문항, 강박성(OC) 척도 13문항이며, 이 중 일부 문항은 두 척도(13문항), 세 척도(4문항) 또는 네 척도(1문항)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의 범위는 .53(강박성 PD)~.75(조현형 PD)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범위는 .58(자기애성 PD)~.89(의존성 PD)였다.

정신병리 5 요인 척도(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Five; PSY-5)

정신병리 5 요인 척도(PSY-5)는 병리적인 성격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척도이다(Harkness et al., 1995). 척도는 공격성(AGGR: Agressiveness), 정신증(PSYC: Psychoticism), 통제 결여(DISC: Disconstraint), 부정적 정서/신경증(NEGE: Negative Emotionality/Neuroticism),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INTR: Introversion/Low Positive Emotion)의 5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9문항으로 공격성 척도 18문항, 정신증 척도 25문항, 통제 결여 척도 29문항, 부정적 정서/신경증 척도 33문항,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 척도 34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의 2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MMPI-2 문항에서 PSY-5 척도를 뽑아 사용하였다.

결 과

신뢰도

내적 일관성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EM 추

표 1. PID-5의 내적 일관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 수	내적 일관성 (N=607)	검사-재검사 신뢰도 (n=44)
감정 가변성	7	.85	.84**
불안성	9	.84	.87**
우울성	14	.89	.87**
적개성	10	.81	.86**
고집증	9	.81	.81**
분리 불안	7	.77	.85**
복중성	4	.68	.76**
위축	10	.86	.88**
친밀성 회피	6	.79	.92**
무쾌감증	8	.83	.80**
제한된 정서성	7	.70	.82**
의심성	6	.72	.67**
기만	10	.83	.67**
조종	5	.64	.73**
냉담성	14	.81	.73**
과대성	6	.71	.81**
관심추구	8	.84	.84**
경직된 완벽주의	10	.85	.89**
주의산만	9	.85	.84**
충동성	6	.83	.80**
무책임성	7	.68	.67**
위협 감소	14	.80	.81**
특이한 믿음과 경험	8	.81	.56**
기이성	13	.92	.86**
지각적 조절곤란	12	.84	.77**
평균		.80	.80

**p<.01.

정값²⁾으로 대체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판 PID-5에 포함된 25개 양상(facets)의 내적 일관성(Cronbach alpha)은 평균 .80이며, 범위는 .64(조종)~.92(기이성)였다(표 1). 이 분석에서 나타난 한국판 PID-5의 내적 일관성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각 양상에서 개별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의심성’ 양상의 177번 문항(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하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한다)을 제거했을 때 내적 일관성이 .56에서 .72로 매우 증가하여 이 문항이 ‘의심성’ 양상의 내적 일관성을 저하한다고 판단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결과로 220문항 중 최종적으로 219문항으로 선정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 44명에게 평균 3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로 검사-재검사 신뢰도(r)를 산출한 결과(표 1) 총 25개 양상의 평균은 .80이고 범위는 .56(특이한 믿음과 경험)~.92(친밀성 회피)였다. 이 결과는 한국판 PID-5가 시간 변화에 따른 척도 점수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타당도

PID-5의 요인구조

한국판 PID-5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원판의 요인구조와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 추출법(Principle-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추출된 요인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사각 회전방식 중 하나인 직각 오블리민(Oblimin) 방법을 사용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가지는 모형에서 모든 변인들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나타내며 결측치의 발생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가정 하에 결측치를 보완해주는 방법이다. 결측치 비율이 적은 경우 대체적으로 모집단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통계치를 제공한다(김덕준, 2009).

하였다. 다음으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Kaiser 규칙, Cattell(1966)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 Horn(1965)의 평행분석법(Parallel Analysis) 그리고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다섯 개(9.867, 2.558, 1.836, 1.519, 1.099)였다. 그리고 스

크리 도표에서 요인 수가 다섯 개를 넘어갈 때 요인 간 고유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요인을 다섯 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평행분석법(Parallel Analysis)에서는 무선 자료 고유치의 값보다 큰 초기 고유치의 값이 네 개로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

표 2. 한국판 PID-5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관에서 제시된 요인구조		1	2	3	4	5
부정적 정서성	감정 가변성	.78	-.03	-.03	.06	-.04
	불안성	.69	.24	.07	.21	.25
	우울성	.61	.48	.08	.01	-.01
	적개심	.58	.15	-.25	.05	-.01
	고집증	.48	.21	-.03	.33	-.09
	분리불안	.43	-.10	.02	.28	-.08
	복종성	.36	-.05	-.15	.30	.24
에착상실	위축	.06	.78	-.14	.01	.06
	친밀성 회피	.01	.68	.14	-.05	-.09
	무쾌감증	.39	.64	-.02	-.03	.15
	제한된 정서성	-.18	.63	-.25	.11	-.02
	의심성	.39	.45	-.14	.07	.02
적대성	기만	.21	.10	-.75	.01	-.01
	조종	.00	.03	-.64	.23	-.07
	냉담성	.08	.46	-.45	-.13	-.28
	과대성	-.12	-.09	-.27	.49	-.13
	관심추구	.13	-.32	-.22	.48	-.27
탈억제	경직된 완벽주의	.11	.27	.06	.68	.09
	주의산만	.75	.02	-.16	-.06	-.01
	충동성	.64	-.20	-.15	-.20	-.34
	무책임성	.48	.12	-.35	-.13	-.11
	위험 감수	-.04	-.05	-.10	.00	-.61
정신병적경향성	특이한 믿음과 경험	.08	.39	.07	.29	-.49
	기이성	.36	.25	-.13	.09	-.43
	지각적 조절곤란	.46	.30	.06	.19	-.41

주. 원관의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facets)은 음영 표시하였으며 원관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양상은 밑줄 표시하였음.

면 4요인 구조 또는 5요인 구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된다.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의 개수와 경험적 결과에서 5가지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져 요인의 개수를 5개로 설정하였다. 추출된 다섯 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59.28%를 설명하였다.

PID-5의 25개 양상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2)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 요인에는 ‘감정 가변성’, ‘불안성’, ‘우울성’, ‘적개심’, ‘고집증’, ‘분리불안’, ‘복종성’ 양상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애착상실 영역에 해당하는 두 번째 요인에는 ‘위축’, ‘친밀성 회피’, ‘무쾌감증’, ‘제한된 정서성’, ‘의심성’ 양상이 포함되었고,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요인에는 ‘특이한 믿음과 경험’, ‘기이성’, ‘지각적 조절곤란’ 양상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적대성 영역에 해당된다고 여겨진 세 번째 요인에서는 ‘기만’, ‘조종’, ‘냉담성’ 양상만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과대성’과 ‘관심추구’ 양상은 상대적으로 부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탈억제 영역으로 여겨지는 네 번째 요인에서는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만 해당 요인에 부합하였고 나머지 ‘주의산만’, ‘충동성’, ‘무책임성’ 양상은 첫 번째 요인에, ‘위험 감수’ 양상은 다섯 번째 요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정적 정서성 영역, 애착상실 영역,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부합하는 양상들은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요인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적대성 영역과 탈억제 영역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 양상들은 선행연구에 나타난 요인구조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판 PID-5의 구성 타당도: 성격장애 진단검사와의 상관관계

한국판 PID-5에 있는 양상(facets)들이 DSM-IV

에 포함되어있는 성격장애와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PID-5에 속한 25개 양상과 성격장애 진단검사로 측정되는 10개의 성격장애 간 상관을 비교하였다(표 3). Section III에 포함된 여섯 개의 성격장애는 관련 양상이 DSM-5 진단준거로 제시되었다.

먼저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조현형 성격장애는 ‘지각적 조절곤란($r=.76, p<.001$)’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기이성’, ‘특이한 믿음과 경험’ 순이었다. 진단준거로 포함되지 않은 일부 양상(예: 우울성)과도 추가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적개심($r=.61, p<.001$)’과 ‘냉담성($r=.61, p<.001$)’ 양상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기만’, ‘충동성’, ‘조종’ 순이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 가변성($r=.76, p<.001$)’과 상관이 가장 높았고 ‘적개심’, ‘우울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양상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 감수($r=.27, p<.001$)’와 ‘분리불안($r=.34, p<.001$)’ 양상과는 비교적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관심추구($r=.56, p<.001$)’에서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대성($r=.48,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회피성 성격장애는 ‘불안성($r=.63, p<.001$)’과의 상관이 높았으며 ‘무쾌감증’, ‘위축’ 순이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강박성 성격장애는 ‘경직된 완벽주의($r=.69, p<.001$)’에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제한된 정서성($r=.25, p<.001$)’과 ‘친밀성 회피($r=.17, p<.01$)’와의 상관은 낮은 편이었다.

편집성, 조현성, 히스테리성, 의존성 성격장애는 Section III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PID-5가 DSM-IV의 성격장애와 연속성을 갖추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보강해준다. 위의 성격장애는 관련 양상이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상관을 가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의심성($r=.72, p<.001$)’과 가장 상관이 높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양상에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조현성 성격장애는 ‘위축

표 3. 한국판 PID-5와 성격장애 간 상관관계

	Section III에 포함된 성격장애						Section III에 포함되지 않은 성격장애			
	조현형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	회피성	강박성	편집성	조현성	연극성	의존성
감정 가변성	.56***	.45***	.76***	.35***	.40***	.27***	.55***	.30***	.43***	.52***
불안성	.48***	.26***	.52***	.25***	.63***	.46***	.62***	.39***	.23***	.65***
우울성	.61***	.38***	.61***	.12*	.60***	.26***	.67***	.61***	.05	.52***
적개심	.52***	.61***	.69***	.42***	.41***	.23***	.64***	.46***	.30***	.42***
고집증	.54***	.34***	.50***	.33***	.39***	.39***	.54***	.40***	.22***	.51***
분리불안	.31***	.26***	.34***	.27***	.23***	.13*	.26***	.15*	.29***	.45***
복중성	.22***	.02	.18**	.23***	.25***	.25***	.26***	.12*	.17**	.46***
위축	.50***	.26***	.34***	.02	.53***	.24***	.60***	.74***	-.24***	.26***
친밀성 회피	.35***	.12*	.28***	-.13*	.37***	.17**	.41***	.52***	-.21***	.16**
무쾌감증	.48***	.27***	.46***	.10	.58***	.32***	.60***	.68***	-.03	.44***
제한된 정서성	.33***	.23***	.16**	.10	.14*	.25***	.41***	.51***	-.27***	.04
의심성	.57***	.41***	.54***	.22***	.50***	.23***	.72***	.55***	.09	.43***
기만	.50***	.59***	.49***	.44***	.22***	.15*	.55***	.33***	.18***	.26***
조종	.40***	.52***	.43***	.40***	-.01	.21***	.39***	.24***	.21***	.10
냉담성	.50***	.61***	.44***	.20**	.21***	-.01	.51***	.58***	-.04	.10
과대성	.20***	.22***	.15*	.48***	-.20**	.19**	.17***	.08	.26***	-.04
관심추구	.32***	.33***	.34***	.56***	-.12*	.16**	.24***	-.04	.50***	.14*
경직된 완벽주의	.37***	.13*	.31***	.30***	.30***	.69***	.46***	.29***	.16**	.35***
주의산만	.50***	.43***	.58***	.27***	.34***	.14*	.46***	.33***	.28***	.50***
충동성	.41***	.58***	.56***	.28***	.02	-.14*	.32***	.20**	.33***	.18**
무책임성	.45***	.48***	.52***	.28***	.27***	.10	.50***	.33***	.19**	.33***
위험 감수	.23***	.44***	.27***	.10	-.25***	-.11	.10	.03	.17**	-.26***
특이한 믿음과 경험	.67***	.38***	.42***	.28***	.19**	.21***	.49***	.43***	.08	.22***
기이성	.71***	.50***	.55***	.33***	.18**	.14*	.54***	.44***	.16**	.23***
지각적 조절곤란	.76***	.40***	.61***	.35***	.32***	.24***	.57***	.41***	.18**	.38***

주. Section III에 포함된 성격장애는 진단기준으로 제한된 양상에, Section III에 포함되지 않은 성격장애는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양상에 음영 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r = .74, p < .001$)과 ‘무쾌감증($r = .68, p < .001$)’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는 ‘관심추구($r = .50, p < .001$)’와 ‘감정 가변성($r = .43, p < .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성격장애는 ‘불안성($r = .65, p < .001$)’에서 상관이 가장 높았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Section III에 포함된 여섯 개의 성격장애 및 나머지 네 개의 성격장애는 전반적으로 각 성격장애의 핵심특성으로 여겨지

는 PID-5 양상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PID-5의 수렴·변별 타당도: PSY-5 척도와의 상관관계

한국판 PID-5 양상과 PSY-5 척도 영역 간 수

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PID-5의 25개 양상과 PSY-5 척도의 5가지 소척도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는 한국판 PID-5와 PSY-5 척도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 포함된다고 여겨진 ‘감정 가변성’, ‘불안성’, ‘우울

표 4. 한국판 PID-5와 PSY-5 척도의 상관관계

	NEGE	INTR	AGGR	DISC	PSYC
감정 가변성	.65***	.09	.17**	.20***	.35***
불안성	.71***	.27***	.01	.07	.36***
우울성	.58***	.36***	.04	.18**	.49***
적개심	.60***	.21***	.29***	.31***	.42***
고집증	.49***	.15**	.09	.15**	.42***
분리불안	.35***	-.02	.14*	.07	.26***
복종성	.30***	.06	-.08	.01	.21***
위축	.25***	.44***	.00	.07	.41***
친밀성 회피	.12*	.42***	-.06	-.10	.30***
무쾌감증	.49***	.46***	-.02	.12*	.46***
제한된 정서성	.09	.22***	.06	.06	.29***
의심성	.44***	.27***	.10	.19**	.53***
기만	.34***	.00	.25***	.47***	.39***
조종	.15**	-.10	.35***	.42***	.32***
냉담성	.20**	.15***	.23***	.39***	.52***
과대성	.03	-.28***	.35***	.17**	.18**
관심추구	.12*	-.36***	.41***	.32***	.19**
경직된 완벽주의	.39***	.13*	.18**	-.04	.34***
주의산만	.53***	.19**	.03	.28***	.32***
충동성	.42***	-.04	.15**	.40***	.25***
무책임성	.43***	.10	.08	.41***	.44***
위협 감소	.02	-.23***	.40***	.46***	.23***
특이한 믿음과 경험	.23***	.06	.25***	.22***	.56***
기이성	.39***	.05	.28***	.35***	.51***
지각적 조절관란	.53***	.13*	.20***	.27***	.60***

주. 개념적으로 기대된 결과는 음영 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성’, ‘적개심’, ‘고집증’, ‘분리불안’, ‘복종성’은 NEGE(부정적 정서/신경증)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애착상실 영역에 포함된다고 여겨진 ‘위축’, ‘친밀성 회피’, ‘무쾌감증’, ‘제한된 정서성’은 INTR(내향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의심성’ 양상은 INTR 척도보다 PSYC(정신증) 척도에서 상관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적대성 영역으로 포함된다고 여겨진 ‘기만’, ‘조종’, ‘냉담성’, ‘과대성’, ‘관심추구’ 양상은 AGGR(공격성) 척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위의 양상들은 DISC(통제결여) 척도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탈억제 영역으로 포함된 양상 중 ‘주의산만’, ‘충동성’, ‘무책임성’, ‘위험 감수’는 DISC 척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경직된 완벽주의’와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부정적 정서성 영역으로 포함된 ‘주의산만’, ‘충동성’, ‘무책임성’은 NEGE 척도에서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으로 포함된 ‘특이한 믿음과 경험’, ‘기이성’, ‘지각적 조절곤란’은 PSYC 척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PSYC 척도는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 및 다른 영역에 포함된 양상과도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논 의

PID-5는 현재 실험적 단계에 있는 DSM-5 Section III의 성격장애 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기존 사용되던 성격모델을 반영하여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성격장애와 관련된 특성을 25개 양상(facet)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필요한 양상만 뽑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PID-5는 연구나 임상 장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ID-5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국내에서 성

격장애를 평가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PID-5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25개 양상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평균 .80이며 범위는 .64(조종)~.92(기이성)였다. 그리고 평균 3주 기간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평균은 .80이며 범위는 .56(특이한 믿음과 경험)~.92(친밀성 회피)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PID-5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판 PID-5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개 요인이 추출된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했으나 각 영역(domain)에 포함되는 양상(facet)들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와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번역 과정에서 원래 문장이 지니고 있던 의미가 달라졌을 수 있다. 문항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번역한 것이 참가자들에게 와닿지 않거나 딱딱하게 여겨졌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려운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다 매끄럽게 수정하여 보완해볼 수 있겠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구성한 원척도의 구성과 개별 문항 내용이 한국인의 성격특성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 성격은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지고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평생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오현숙, Goth, & 민병배, 2008).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라지면 개별 행동의 의미와 중요성도 달라질 수 있고, 성격평가 도구의 원판과 한국어판에서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민경환, 1996).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로 추출된 다섯 개의 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 애착상실,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 양상들은 관련 영역에 잘 부합하였다. 그러나 적대성

과 탈억제 영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 양상 중 일부는 다른 영역에 더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과대성’과 ‘관심추구’ 양상은 적대성 영역에 해당하는 세 번째 요인보다 네 번째 요인에서 더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그리고 탈억제 영역으로 여겨진 양상 중 ‘경직된 완벽주의’만 네 번째 요인에 부합하였고 ‘무책임성’, ‘충동성’, ‘주의산만’은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 ‘위험 감수’는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적대성 영역에 부합하는 ‘기만’, ‘조종’, ‘냉담성’ 양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과대성’과 ‘관심추구’ 양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남들에게 주목받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에서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관심을 추구하는 행동이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적대성의 특성을 가지는데 비해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성격 특질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타인에게도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감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추측된다. 예를 들어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문항은 자신만만하고 외향적인 모습으로 사교적이고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과대성’과 ‘관심추구’ 양상과 동일한 요인에 해당하는 ‘경직된 완벽주의’의 문항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 자체를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번 확인한다’라는 문항은 실수 없이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려는 모습으로 오히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특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과대성’과 ‘관심추구’, ‘경직된 완벽주의’가 같은 요인으로 묶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격 특질이 외국의 경우와 다른 별개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위험 감수’가 탈억제 영역보다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위험한 행동을 자주 범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각추구 경향이 높는데 이러한 감각 추구자들은 평범한 자극이나 경험보다는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Zuckerman, Bone, Neary, Mangelsdorff, & Brustman, 1972).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에게는 ‘위험 감수’라는 특징이 외적 자극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보다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스틸 있는 활동을 즐기는 특이한 사람에게 가깝다고 여겨져 나온 결과가 아닐까 추측된다. 그리고 ‘무책임성’, ‘충동성’, ‘주의산만’ 양상이 탈억제 영역보다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것은 해석이 쉽지 않다. 부정적 정서성과 탈억제 영역에 포함된 양상들은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과대성’, ‘관심추구’,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이 별개의 특성을 가진 요인으로 묶이고 ‘무책임성’, ‘충동성’, ‘주의산만’ 양상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의력 결핍이 있는 성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기분이 변화하는 정서적 가변성을 경험한다(Wender, 1995). 그리고 부주의와 충동성이 주 특징인 ADHD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으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연관된 경우도 빈번하다(Biederman, 2004; Spencer, Biederman, & Wilens, 1999).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탈억제 영역으로 제안되었던 양상들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 영역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Krueger 등(2012)은 심리적, 정신의학적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선발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 집단에 해당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몇 개의 양상들을 묶어 영역(domain)을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개별 양상 값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가 번역과정으로 인한 것인지, 문화적 차이 또는 우리나라와의 병리적 성격 구조의 차이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 연구로 결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추후 연구들이 진행될 때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판 PID-5 양상들이 성격장애의 특징과 적절한 연관성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장애 또는 성격 병리를 측정하는 다른 검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Section III에 포함된 성격장애들은 대부분 DSM-5에서 제안한 양상과 적절한 상관을 가졌고 일부 다르게 나타난 양상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조현형 성격장애는 진단준거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양상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신경증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나 제한적인 정동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 이러한 특징들로 조현형 성격장애는 여러 양상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경계성 성격장애도 제안된 양상 이외에도 ‘의심성’, ‘주의산만’, ‘기이성’, ‘지각적 조절곤란’ 양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위험감수’와는 상관이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PID-5와 PDQ-4+의 관계를 살펴본 Hopwood 등(2012)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사고, 감정, 행동, 자아상, 대인관계 등 개인의 많은 영역에서 현저하게 불안정성을 겪는다(APA, 2013). 이런 점에서 경계성 성격장애가 핵심특징이라 여겨진 양상뿐만 아니라 다른 양상과도 정적 상관을 보인 것 같다. 그리고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강박성 성격장애는 ‘경

직된 완벽주의’ 양상과의 상관은 매우 높았으나 나머지 ‘친밀성 회피’, ‘제한된 정서성’과는 상관이 다소 낮았다. 위의 결과도 Hopwood 등(201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성향을 살펴본 것이라 강박성 성격장애의 핵심특징인 ‘경직된 완벽주의’만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양상은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한국판 PID-5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음이 짐작된다. 그러나 일부 성격장애에서 추가로 다른 상관이 나타난 양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판 PID-5 양상과 PSY-5 척도 간 수렴·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PID-5 영역 및 양상들은 대체적으로 유사 구성개념으로 여겨지는 PSY-5 소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일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애착상실 영역으로 포함된 ‘의심성’ 양상은 INTR(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 척도보다 PSYC(정신증) 척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편집적인 사고나 망상을 가지는 조현형 성격장애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SYC 척도에는 편집증과 불신 및 고립에 대한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Arnaud, Handel, & Archer, 2005) ‘의심성’ 양상과 PSYC 척도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이 DISC(통제 결여)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NEGE(부정적 정서/신경증) 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DISC 척도 점수가 낮은 경우 자기 통제력이 높아 지루한 상황도 잘 견디며 규칙을 잘 지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이 DISC 척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EGE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강박성 성격장애가 NEGE 척도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Bagby, Ryder, Ben-Dat, Bacchiocchi, & Parker, 2002)와 비슷한 맥락이다.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며 그에 만족하지 경우 불안이나 걱정

과 같은 여러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볼 만한 사항으로 적대성 영역에 포함된 양상들은 AGGR(공격성) 척도뿐만 아니라 DISC 척도에서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Anderson 등(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DISC 척도의 문항 중에서 반사회적 경력이나 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Arnaud et al., 2005) 이는 '기만'이나 '조종' 같은 적대성의 양상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적대성 영역은 기존 PSY-5 척도의 AGGR 척도와는 다른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 AGGR 척도와 DISC 척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탈억제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 영역으로 포함된 '무책입성', '충동성', '주의산만' 양상은 DISC 척도와 NEGE 척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요인구조와 본 연구의 요인구조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추후 본 연구에서 나온 요인구조와 기존 선행연구의 요인구조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상은 PSYC 척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성격장애와 관련된 양상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증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도구의 특성상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성격 병리의 구조 측면에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Widiger, 2005) 본 연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성격 병리의 극단 접수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변인 간 상관이 실제보다 왜곡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상집단이 포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차 타당화를 위해 추후 다른 표집

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30대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을 고려해 이 검사가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판 PID-5의 부정적 정서성 영역과 탈억제 영역에 속하는 양상들이 모호하게 나타나 이를 검토하는 보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PID-5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들을 대체로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며, 차원-범주적 모델에 입각한 DSM-5 section III 성격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덕준 (2009). SPSS를 활용한 결측치 처리 방안 비교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177-196.
- 민경환 (1996). 성격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연구세미나*, 79-103.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73-288.
- 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 분열형 성격 대 학생의 MMPI 반응특성. *한국교육심리학회*, 11(3), 123-145.
- 오현숙, Goth, K., & 민병배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문화적 배경과 국가간 비교: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91-407.
- 최은경, 하지현 (2013). DSM-5 인격장애에 정신 분석적 개념의 진입 시도. *한국정신분석학회*, 24, 102-110.

- 황순택, 조혜선, 박미정, 이주영 (2015).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1-1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 Anderson, J. L., Sellbom, M., Bagby, R. M., Quilty, L. C., Veltri, C. O., Markon, K. E., & Krueger, R. F. (2013). On the convergence between PSY-5 domains and PID-5 domains and facets implications for assessment of DSM-5 personality traits. *Assessment*, 20, 286-294.
- Anderson, J., Snider, S., Sellbom, M., Krueger, R., & Hopwood, C. (2014). A comparison of the DSM-5 Section II and Section III personality disorder structures. *Psychiatry research*, 216(3), 363-372.
- Arnau, R. C., Handel, R. W., & Archer, R. P. (2005). Principal components analyses of the MMPI-2 PSY-5 scales identification of facet subscales. *Assessment*, 12(2), 186-198.
- Bagby, R. M., Ryder, A. G., Ben-Dat, D., Bacchocchi, J., & Parker, J. D. (2002). Validation of the dimensional factor structure of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in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6(4), 304-316.
- Bernstein, D. P., Iscan, C., & Maser, J. (2007). Opinions of personality disorder experts regarding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5), 536-551.
- Biederman, J. (2004). Impact of comorbidity in adults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3), 3-7.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245-276.
- Fossati, A., Krueger, R. F., Markon, K. E., Borroni, S., & Maffei, C. (201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Predicting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in Community-Dwelling Italian Adults. *Assessment*, 20(6), 689-708.
- Harkness A. R., McNulty J. L., & Ben-Porath Y. S. (1995).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PSY-5): constructs and MMPI-2 scales. *Psychological Assessment*, 7, 104-114.
- Hopwood, C. J., Thomas, K. M., Markon, K. E., Wright, A. G., & Krueger, R. F. (2012). DSM-5 personality traits and DSM-IV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2), 424.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185.
- Krueger, R. F., Derringer, J., Markon, K. E., Watson, D., & Skodol, A. E. (2012). Initial construction of a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 model and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Medicine*, 42, 1879-1980.
- Krueger, R. F., & Markon, K. E. (2014). The role of the DSM-5 personality trait model in moving toward a quantitative and empirically based approach to classify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 477-501.
- Kupfer, D. J., First, M. B., & Regier, D. A. (Eds.) (2002). *A research agenda for DSM-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Sellbom, M., Anderson, J. L., & Bagby, R. M. (2013). Assessing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Traits and Disorders With the MMPI-2RF. *Assessment*, 20(6), 709-722.

- Skodol, A. E., Bender, D. S., Morey, L. C., Clark, L. A., Oldham, J. M., Alarcon, R. D., ... & Siever, L. J. (2011). Personality disorder types proposed for DSM-5.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2), 136-169.
- Spencer, T., Biederman, J., & Wilens, T. (1999).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comorbidity.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6*(5), 915-927.
- Verheul, R., & Widiger, T. A. (2004). A meta-analysis of the prevalence and usage of the personality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PDNOS) diagnosi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4), 309-319.
- Wender, P. H. (1995).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adult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diger, T. A. (2005).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order: Integrating science and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67-83.
- Widiger, T. A., & Simonsen, E. (2005). Alternative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finding a common groun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 110-130.
-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2), 71-83.
- Zuckerman, M., Bone, R. N., Neary, R., Mangelsdorff, D., & Brustman, B. (1972). What is the sensation seeker? Personality trait and experience correlates of the Sensation-Seek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2), 308.

1 차원고접수 : 2015. 12. 03.

수정원고접수 : 2016. 07. 06.

최종게재결정 : 2016. 07. 1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So-Young Shin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tes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 which is based on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the core criterion of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disorder - after translating it into Korean language. The test comprises of 5 domains - negative affect, attachment, antagonism, disinhibition, psychoticism - and each domain comprises of 25 detailed facets, and there are total 220 questions (219 in the Korean version). To 607 adults over the age of 18, along with the Korean version of PID-5,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and PSY-5 wer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collected data. As the result of analyses, first, the Korean PID-5 showed appropriate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Secondly, reviewing the factor structure, the facets of negative affect domains, attachment domains and psychoticism domains were identical to the factor structure of the original. However, the facets of antagonism domains and disinhibition domains were difference to the factor structure of the original. Thirdly, the Korean version's PID-5 face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o each personality disorder's core personality traits. Fourth, the Korean version's PID-5 facet showed relative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SY-5's related scales. The results above show that, although there are partial differences to the results of preceding overseas research, the PID-5 is measuring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various personality disorders in this country relatively well,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tool for evaluating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disorders.

Keywords : Personality disorder,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Disorder for DSM-5, PID-5

부록 1. 한국판 DSM-5 성격검사(PID-5) 문항

<p>이것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질문지입니다. 답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선택해주세요.</p> <p>- 문항은 전혀 아니다(0), 약간 아니다(1), 약간 그렇다(2), 매우 그렇다(3)로 체크합니다.</p>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2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3	사람들은 나를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전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5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생각을 한다.
6	나는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 대화의 흐름을 놓친다.
7	나는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8	사람들은 나를 감정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
9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맞춘다.
10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
11	나는 육체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2	나는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13	예의 없고 불친절한 것은 단지 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14	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행동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16	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17	나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지 못한다.
18	나는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변한다.
19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20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편이다.
21	나는 종종 남들에게는 특이하고 이상해 보이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22	나는 항상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23	나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24	다른 사람들은 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5	사람들은 내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26	나는 대체로 삶을 즐기지 못한다.
27	나는 어떤 일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다.
28	나는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짜증나게 하면 바로 쓰아붙인다.
29	나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30	나는 활기찬 사람이다.
31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32	나는 필요하다면 야비해질 수 있다.
33	내 생각은 종종 기이하거나 특이한 방향으로 빗나간다.
34	나는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말을 듣는다.
35	나는 위험한 스포츠와 활동을 피한다.

36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37	때때로 내 신체 중 일부가 죽어버렸거나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든다.
38	나는 화를 잘 낸다.
39	위험한 활동을 할 때도 절제를 잘 못하고 한계를 넘고 만다.
40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중요한 존재이다.
41	나는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얘기할 때가 있다.
42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의 행동 중에는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종종 있다.
43	나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
44	이상한 일이지만, 어떤 대상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
45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46	시간이 다 됐어도 하던 일을 멈추기가 어렵다.
47	나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다.
48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
49	사람들은 내가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50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많이 걱정된다.
51	나는 일을 올바로 정확하게 하느라고 바빠서 정작 다른 많은 것들을 놓쳤다.
52	다른 사람들은 종종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53	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꾸며서 둘러댈 때가 있다.
54	나는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보더라도 그다지 괴롭지 않다.
55	사람들은 종종 내가 마치 매우 기이한 얘기를 하는 것 마냥 나를 쳐다볼 때가 있다.
56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57	나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더 좋다.
58	나는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편이다.
59	잠이 막 들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생생한 꿈같은 이미지를 종종 볼 때가 있다.
60	일이 잘 안되더라도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한다.
61	내 자신이 무척 불만족스럽다.
62	나의 감정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다.
63	나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64	나는 단 몇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6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66	내 미래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67	나는 위협에 처하는 것을 즐긴다.
68	나는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겨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
69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다.
70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71	내 생각은 낯설고 예측하기 어렵다.
7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73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74	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을 좋아한다.

75	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76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교활하게 행동할 수 있다.
77	때때로 나는 어떤 친숙한 대상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78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79	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걱정이 많다.
80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
81	내가 죽으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82	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
83	내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84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
85	나는 뒷사람이라도 내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분개한다.
86	나는 사소한 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많아 너무 부끄럽다.
87	나는 조금이라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한다.
88	나는 짧은 기간이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렵다.
89	나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90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91	내 감정을 크게 드러내진 않는 편이다.
92	나는 성질이 매우 급하다.
93	나는 예전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때가 종종 있다.
94	나는 약간의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 (예: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95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초조해진다.
96	나는 웬만한 일에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97	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즐겁다.
98	나는 허황되게 행운을 기대하기 보다는 안전한 쪽을 택하고 싶다.
99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100	나는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멈추지 못한다.
101	사람들은 내 감정이 어떤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102	나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다.
103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104	나는 종종 실패했다는 느낌이 든다.
105	나는 내가 한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106	실제로는 거기에 없는 사람을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특이한 경험을 종종 한다.
107	나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
108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109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
110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서 다 걱정거리다.
111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112	나는 간혹 있는 약간의 위험은 개의치 않는다.
113	나는 대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가 종종 있다.

114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115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나의 요구에 대해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
116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수한다.
117	나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거나 해를 입힐 까봐 항상 경계한다.
118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다.
119	나는 자살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다.
120	나는 성적인 관계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
121	어떤 것에 폭 빠져 떨어버리기 어렵다.
122	나는 별 것 아닌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123	나의 완벽주의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
124	나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125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126	앞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부풀려 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127	혼자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두렵다.
128	나의 일 처리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식을 고집한다.
129	나는 종종 나 자신이나 남의 물건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130	나는 불안이 심한 사람이다.
131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132	나는 주의가 쉽게 흐트러진다.
133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134	남보다 앞서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속임수를 쓰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135	나는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번 확인한다.
136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37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다고 느낀다.
138	나는 내 감정이 순간순간 어떻게 바뀌지 모르겠다.
139	실제로 그 곳에 있지 않은 것들이 내 눈에는 보인다.
140	나에게는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41	나는 항상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142	나는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려 노력한다.
143	나는 마음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
144	나는 어떤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145	나는 연인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146	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는 관심이 없다.
147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한다.
148	나는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
149	나는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150	나는 때때로 말을 하지 않고도 생각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51	나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152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153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154	나는 때때로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55	나는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156	나는 사실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약속을 한다.
157	나는 어떻게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158	나는 별 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
159	나는 위협할 가능성은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160	나는 종종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161	나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62	나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
163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164	나는 위협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165	나는 사소한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166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에게는 별일이 아니다.
167	나는 남들에게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168	나는 종종 비참한 느낌이 든다.
169	나는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170	나는 항상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171	나는 책임 질 상황을 피하곤 했다.
172	나는 이상한 버릇이나 습관을 갖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본 적 있다.
173	나는 주목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174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항상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175	나는 결단코 혼자 있고 싶지 않다.
176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잘 해놓고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177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을 잘 눈치 채지 못한다.
178	나는 내가 언젠가는 자살을 할 것임을 알고 있다.
179	나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다.
180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매력을 이용할 수 있다.
181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겠다.
182	나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183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184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
185	나는 사람들 눈에 유별나고 이상해 보이는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
186	나는 사교모임을 피한다.
187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188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무척 화가 난다.
189	나는 어떤 것에도 열정이 없는 편이다.
190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191	나는 관심 받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192	때때로 누군가가 내 머리 속의 생각을 빼내가는 것 같다.
193	내가 세상이나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것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194	나는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여러 가지 것들 사이의 특이한 관련성을 본다.
195	나는 위험한 일을 할 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196	나는 물건들이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
197	나보다 하찮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198	나는 때때로 누가 뒷사람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한다.
199	나는 사소한 방해물만 있어도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
200	나는 아랫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 재미있다.
201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약속이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20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203	나는 연애를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204	나는 매우 충동적이다.
205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종종 한다.
206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다.
207	나는 나로 인해 남이 다치게 되었을 때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208	나는 “친절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209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10	내가 맡은 일은 철저하게 완수한다.
211	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다.
212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죄책감 속에서 지낸다.
213	나는 의식이 멎 해졌다가 갑자기 회복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을 알게 된다.
214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
215	나는 위협을 무릅쓰는 것을 싫어한다.
216	대접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거칠게 대한다.
217	내 주위의 것들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보통 때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218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진실을 숨길 것이다.
219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
220	나는 일을 할 때 엄격한 방식으로 한다.

부록 2. 한국판 DSM-5 성격검사(PID-5) 양상(facet)별 문항

성격 특질 양상	PID-5 문항	
감정 가변성	18, 62, 102, 122, 138, 165, 181	7문항
불안성	79, 93, 95, 96R, 109, 110, 130, 141, 174	9문항
우울성	27, 61, 66, 81, 86, 104, 119, 148, 151, 163, 168, 169, 178, 212	14문항
적개심	28, 32, 38, 85, 92, 116, 158, 170, 188, 216	10문항
고집증	46, 51, 60, 78, 80, 100, 121, 128, 137	9문항
분리불안	12, 50, 57, 64, 127, 149, 175	7문항
복종성	9, 15, 63, 202	4문항
위축	10, 20, 75, 82, 136, 146, 147, 161, 182, 186	10문항
친밀성 회피	89, 97R, 108, 120, 145, 203	6문항
무쾌감증	1, 23, 26, 30R, 124, 155R, 157, 189	8문항
제한된 정서성	8, 45, 84, 91, 101, 167, 184	7문항
의심성	2, 103, 117, 131R, 133, 190	7문항
기만	41, 53, 56, 76, 126, 134, 142R, 206, 214, 218	10문항
조종	107, 125, 162, 180, 219	5문항
냉담성	11, 13, 19, 54, 72, 73, 90R, 153, 166, 183, 198, 200, 207, 208	14문항
과대성	40, 65, 114, 179, 187, 197	6문항
관심추구	14, 43, 74, 111, 113, 173, 191, 211	8문항
경직된 완벽주의	34, 49, 105, 115, 123, 135, 140, 176, 196, 220	10문항
주의산만	6, 29, 47, 68, 88, 118, 132, 144, 199	9문항
충동성	4, 16, 17, 22, 58R, 204	6문항
무책임성	31, 129, 156, 160, 171, 201, 210R	7문항
위험 감수	3, 7R, 35R, 39, 48, 67, 69, 87R, 98R, 112, 159, 164R, 195, 215R	14문항
특이한 믿음과 경험	94, 99, 106, 139, 143, 150, 194, 209	8문항
기이성	5, 21, 24, 25, 33, 52, 55, 70, 71, 152, 172, 185, 205	13문항
지각적 조절곤란	36, 37, 42, 44, 59, 77, 83, 154, 192, 193, 213, 217	12문항
총 220문항		
* 역채점 문항(16)	7, 30, 35, 58, 87, 90, 96, 97, 98, 131, 142, 155, 164, 177, 210, 215	

주.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177번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 제외하였음. 이 문항에 대해서는 추 후 연구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음.